

## 3곳 중 1곳 빈 점포… 쇠락하는 ‘광주의 시내’ 충장로

### 100년 전통 충장로상권 ‘광주의 심장’이 식어간다

〈1〉 과거의 위상은 어디에

광주 최대의 변화가는 ‘옛말’  
‘시내’로 불린 상징적인 공간  
100억 투입 르네상스 사업에도  
침체의 터널 벗어나지 못해  
역사와 전통 살린 콘텐츠 개발  
머무르고 즐기는 상가로 전환을

광주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충장로 상가 3곳 중 1곳이 비어 있을 만큼 쇠퇴가 장기화하고 있다.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상인이 해법으로 제시해온 대책도 쇠락을 막기 위해 역부족이다. 충장로 상권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짚고, 충장로 위상 회복을 모색하는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충장로는 광주시민에게 ‘시내’로 불리며 세대를 넘어 중심 상권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광주읍성 북문을 잇던 핵심 거리였으며,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 상인이 현 갤러리온(충장로 2가 18) 맞은편에 잡화점을 내며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훈마치(本町·중심 거리)’로 불리는 등 중심 상권으로 성장했고, 해방 직후인 1946년 임진왜란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호를 따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됐다.

1963년 개축한 충장로우체국을 중심으로 요식 업과 서비스업이 밀집되며 광주 최대 변화가로 전성기를 누렸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금남로와 함께 시위대의 주요 집결지로 활용되는 등 지역민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충장로는 2000년대 초반 전남도정 이전과 함께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 외곽 지역 개발이



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충장로우체국 일대의 거리가 시민들의 발길이 드물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본격화되면서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쇼핑공간과 음식점, 카페 등으로 구성된 1·2·3가, 한복집, 포목집, 훈수진전문점이 즐비한 4가, 원단도매장, 가방도매점, 액세서리 도매점으로 구성된 5가 등 주요 상권이 모두 주저 앉았다.

침체는 대형 백화점들뿐 아니라 충장로의 터줏대감이던 ‘노포(老鋪·오래된 점포)’와 대형 프랜차이즈도 비켜가지 못했다.

1945년 문을 연 중화요리 전문점 ‘왕자관’, 1983년 개업해 만남의 장소로 꼽히던 돈가스 전문점 ‘유생촌’ 등이 문을 닫았고, 스타벅스(충장점·충장일가점), 베스킨라빈스(광주황금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도 버텨내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은 충장상권에 결정타를 안겼다.

장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임대료 수준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면서, 그나마 버텨오던 상인들마저 하나둘 상권을 떠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명성에만 의존해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체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광주일보가 충장로 1가 입구부터 충장우체국을 지나 3가 충장파출소까지 450m 구간에 들어선 중심 상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99곳(총·호실 기준)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135곳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면으로 계속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 김영록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로”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 발표

광주권, 인재·기술 모이는 중심  
서부권, 전기·물 넘치는 생산기지  
동부권, 반도체산업 최적지 육성



별법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법안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광주권의 경우 광주첨단·장성에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한 공급망에 후

공정(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기업·대학 공동 연구가 이뤄지는 첨단 융복합산업 단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서부권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영암·해남에 걸쳐있는 기업도시는 영암·금호·영산강호를 통해 반도체 팝 6기를 기동할 수 있는 용수(107만 t)를 갖췄을 뿐 아니라 154kV(2027년), 345kV(2029년) 송전망 구축이 진행되는 데다, 태양광(2030년까지 5.4GW)과 해상 풍력(2035년까지 12.1GW) 발전량(17.5GW)도 확충되고 있어 향후 입주 기업들은 지산지소 형태로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으로 대통합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반도체로 여는 인구 400만 전남 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라는 부제가 붙은 비전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에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머무르고, 인구가 증가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통합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개해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동부권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특화단지 지정을 앞둔 광양만권에 반도체까지 포함한 미래 산업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미 갖춰진 석유화학·철강산업 기반 소·부·장 기업을 활용, 여수·순천·광양만권 120만 평의 RE100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를 만드는 구상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로 수도권 1국 체제를 뛰어넘는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 기자 dok2000@kwangju.co.kr

### 케데현 주제가 ‘골든’ K팝 첫 그래미 수상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현)의 주제가 ‘골든’(Golden)이 K팝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관련기사 17면〉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듬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했다. 영상 매체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의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곡 작

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가 그래미 수상자가 됐다. K팝 장르가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처음이다.

‘골든’은 영화의 글로벌 흥행과 더불어 전 세계 차트를 휩쓸며 일찌감치 수상 기대를 모았다. 최근 크리틱스초이스와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고,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어워즈(オス카)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